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12)

대한예수교
성경교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U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거기서 축복 받음

“아름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나니 하고 거기서 아람에게 축복한지라”(창 32:29)



질문에 대하여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축복을 주시길 전까지 한도때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 했던 아람을 생각하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람은 강한 공금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는 대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사도행전 첫 장에서도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가?”(행 1:6). 그러자 예수님은 “태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행 1:7)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 영광스런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 1:8).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능력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복됩니다. 우리들은 아람이나 제자들처럼 우리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여쭙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총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중요한 축복

그 축복의 장소에서 아람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람의 일차적인 간구는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창 32:1). 아람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사백 인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나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에서가 소유하고 있던 물리적인 세력은 극단적인 두려움을 일으킬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은 그런 위험을 모른할 수 있었습니다. 모면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 형 에에게 지지른 장자권 찬탈의 허물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깨어진 관계가 치료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아람이 새 이름,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낱 수종드는 자였던 그가 이제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후로는 내내 새 기쁨 부음을 받은 후자로써 모든 악으로부터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창 48:16).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축복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람이 축복을 받은 그곳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곳은 큰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기도한 장소였습니다(창 32:6-7). 에서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아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자기에게 나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그는 죽어가는 자처럼 바뀌었습니다. 이 때, 그는 하나님의 소매를 붙들고 온 힘을 다해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이든 존재가 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창 32:30). 이와 같이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바로 그곳이 가장 저주스런 장소가 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아람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연합함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브니엘을 지나는 아람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람은 천사와 더불어 싸워 이겼습니다. 그는 울부짖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수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저주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아람은 벨엘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장소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3-4).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궁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 2:4-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대신 지냈던 십자가와 주께서 우리대신 누우셨던 무덤과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의 보좌가 아닙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 22: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한 씨가 임하여 천하 만민을 축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갈보리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은 복종으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2). 아멘! 죄를 고백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말끔히 씻으십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가

환난의 때, 곧 겸비하여 간구하는 때에, 우리는 축복의 장소를 발견합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 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1-2). 주님과 교통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눅 24:30-31).

오직 거기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의 장소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축복의 장소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소유로 모셔들이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섬기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축복을 떠나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 축복의 장소를 잘 자리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위해 오직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아멘.

Sermon of pastor Kim

He blessed him there

"Then Jacob asked him and said, 'Please tell me your name.

"But he said, 'Why is it that you ask my name?' And he blessed him there" (GENESIS 32:29)

Blessing is important. Just recall how Jacob wouldn't let go of God, even when the socket of his thigh was dislocated, until he received a blessing. Blessing is a gift of God's grace. In today's message, Jacob curiously asked God for His name and received no answer, but God blessed him there. This scenario is played over and over again in the lives of God's people. Just look at the picture of Jesus' disciples revealed in the opening of the book of Acts. They ask Jesus,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 (1:6). Isn't this the same sort of curiosity you find in Jacob's question? Jesus responded,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v. 7). Isn't this the same kind of response God gave Jacob? Jesus doesn't answer their question, but He gives them a blessing,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v. 8). Jesus lets His disciples know that they don't need to know the future, but need power for the present time — that's the blessing! The same picture occurs with us. We ask unbefitting and unnecessary questions about or to God, yet are still blessed with His favor. Like Jacob and Jesus' disciples, our questions have answers that our minds cannot understand.

What kind of blessing did Jacob receive at that blessing place? When we look back a little further in the story we find Jacob praying to God for deliverance from the wrath of his brother, Esau (see Gn. 32:11). Jacob really, really feared for his life and the life of his family. When he heard that Esau was approaching him with 400 hundred men (see Gn. 32:6), his fear increased. Esau's physical power represented extreme danger. But Jacob was saved from that great peril. He was not only saved, but he was forgiven a great wrong. His supplanting of Esau was condoned by his brother, and the breach between them was healed (see 33:4). More importantly, Jacob received a new name, Israel, which represented him as the son of God (see Gn. 32:28). Before he was a knight, here he became a prince. Now he was under a fresh anointing, a superior man everafter redeemed from all evil by the angel (see Gn. 48:16). A man who received all the promised blessings of Abraham and Isaac.

What kind of place was it where Jacob was blessed? It was a place of great trials; a place of humble confession to the Lord (see Gn. 32:6-7; 10). Before he heard about Esau's encroachment, Jacob had everything. After he heard about Esau's coming, he became like a dying man. He entered into a place of pleading and a place of communion. He wrestled with God, confessing his nothingness without Him, and met Him face to face (see Gn. 32:30). Whenever we reach our lowest point and come to God — that's the blessing place. It becomes the worst place if we leave God out. Without God's help we lose everything. Jacob realized that without God he would lose everything. He gave up! He realized the truth. He acknowledged that the blessing must come from God. If you consciously realize your weakness, like Jacob did crossing over Penuel (see Gn. 32:31), it's at that point you can cry, "Lord, I'm a sinner. I need your help." God is there because that's the blessing place! All this is full of

instruction for us. Jacob struggled with the angel and overcame Him; he wept and begged for His favor. God prepared him to overcome all curses. Jacob found God at Bethel and walked with Him there (see Hos. 12:4). That's the place.

Are there other such places? Yes!!! Paul writes,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ust a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would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Eph. 1:3&4). As Christians, we are already blessed in Jesus Chris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s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Eph. 2:4-6). My dear friends, it is at the cross, the tomb, and the throne of Jesus that we find blessing places.

God's promise to Abraham that "in your see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y voice", let's us know that one special seed will come and bless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ee Gn. 22:18). Only the great sacrifice at Calvary mountain could fulfill this prophecy. Only Jesus could obey His Father's will. Praise the Lord, for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received His grace. "How blessed is he whose transgression is forgiven. Whose sin is covered! How blessed is the man to whom the Lord does not impute iniquity" (Ps. 32:1&2). Amen! Confession of sin leads to conversion! Jesus is the One who wipes away all our wrong doings!

In times of chastening, humbling and pleading we find the blessing place, "Blessed is a man who perseveres under trial; for once he has been approved,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the Lor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James 1:12). We also find it in joy, "How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s, Nor sit in the sea of scoff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Ps. 1:1&2). In delight of Lord - that's a blessing place. At the ordinance of Jesus there is blessing. "When He had reclined at the table with them, He took the bread and blessed it, and breaking it, He began giving it to them. Then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and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Lk. 24:30&31).

Is there really such a place? Yes! If you are willing to give up sin, that becomes a blessing place. If you are willing to have Jesus for your all and all, that becomes a blessing place. If you are willing to resign yourself to the Father's will and willing to serve God in His own way, that becomes a blessing place. Amen! Don't go away without a saving blessing. Please don't leave your place empty! If you believe, if you wrestle for it, Jesus can give you a blessing. You must look to Him alone for the blessing because only He can give you a blessing,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must be saved" (Acts 4:12) 🙏

III. 구약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이방인에게가 복음이 전파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방인이 사용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발견한다(눅. 행).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선교적 근거를 제시하고, 구약성경은 선교적 메시지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이해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창세기와 시편에서도 선교적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선교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들이 있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과 성령을 이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1.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 개인적인 부르심

구약성경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벨기세덱, 이드로, 발람, 라합, 롯, 나아만 등이 있고, 민족적으로는 나노웨 성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열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대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6a)라는 말씀을 오해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해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을 온전히 배신 율법으로 오해했고 그 결과 ‘거룩’하기 위해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만이 거룩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모든 족속에게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삼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신에만 맞추고 있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요나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셨다. 이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방인에 대한 거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구속의 일을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가셨다.

벨기세덱 - 성경에는 아브라함 시대의 이방인이었던 살렘 왕 벨기세덱이 언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벨기세덱을 “거룩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창 14:18b)으로, 예수 그리스도도의 모형으로 묘사하고 있다(창 5:6,10;6:20). 또한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소개한다(창 14:19,20).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영광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복음을 들었듯이 벨기세덱 역시 그러한 계시로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벨기세덱은 이방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관심을 있으시다는 사실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이스라엘-미디안 제사장이라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방인 이드로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호신 일에 대해 듣고(출 18:1)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니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창 18:10)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 또한 그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께서 나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고만히 행하는 것이 이기셨도다”(창 18:11)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심을 깨달은 이드로는 변절물과 회생을 하나님께 가져온다(창 18:12).

발람-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브드에 살던 발람은(민 22:5a)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최후는 좋지 않았지만 31:8, 발람 2:15) 그는 네 번 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모암에게 그대로 전했다(민 23:7~23:18~24: 24:3~9: 24:15~24). 발람에 대한 기록은, 구약시대 이방인을 중생으로 이스라엘과 똑같이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개개인을 부르셔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진행하셨다.

라합-울리칼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면 이방인이라는 개념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아주 나쁜 여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녀는 믿음의 여인으로 해석된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외에 간담이 녹나니”(수 2:9)라고 자신의 정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상응하게 하옵소서”(수 2:11b)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이것이야말로 구 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결국 라합은 예수님의 죽임과 부활복음에서 하나님의 조상으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다. 야고보 역시 정감공손을 송신 라합의 행동이 그의 순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증거한다(야고 2:25).

또-모압 여인 욥 역시 나노웨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방인이었 던 욥은 혈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택을 한다(욥 1:16). 이에 나노미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시라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에 아레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렘 2:12)라 욥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뜻있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도의 조상일 것은 도구로 사용하셨다(창 4:17,22).

2. 나아만 장군의 사건이 주는 선교적인 암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사건이 치유의 능력 그 이상의 선교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왕하 5:1). 그는 강력한 힘을 가졌으나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왕하 5:1b). 그러한 그에게 복된 소식(福音)이 전해진다.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잡아 온 이글로즈 말라지자 같은 작은 여자이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제집안이 하나를 사로잡았으니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니 그를 좇았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니다”(왕하 5:2,3). 이 복음을 들은 나아만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그러나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그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줄 착각하고 두려워한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라 웃을 썰며로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랴도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고 또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왕하 5:13) 그는 겁을 먹고 자라 웃을 타서 나로 더불어 소비하여 한일 줄 알라 하니라”(왕하 5:14).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현실적인 문제 뿐이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는 나아만에게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큰 신 일됨을 알지 못했던 작은 여자의 이름과 믿음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난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눅 4:27). 예루살렘도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던 나아만의 예를 따라 믿음 없이 당시 유대인들을 구했으셨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사환으로부터 “오단 간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왕하 5:10)라는 명령을 받고 자신의 경멸을 느꼈지만 “내 아버지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되면 행치 아니하였으리니가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지기를 하리요 깨끗하게 할미리이까”(왕하 5:13)라 권유하는 중동의 땅에 따라 사환이 지시한 대로 행했다. 나아만의 자존심이 그들 사환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중동의 단순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의 살을 깨끗하게 하셨고(왕하 5:14),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먼저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서 “당신의 종”이라며 자신을 낮추고(왕하 5:15,17,18). 고만하며 그와 겸손하게 서서 “당신의 종 앞에 서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았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종이 빈대처럼 다스려 주신 대로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지나니”(왕하 5:17b).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음이 성경에 나타난다. “그러면 청진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왕하 5:17a).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의 신에 대한 개념은 ‘지역적’이었다. 때문에 그들이 있어 서는 단순하고 그 지역에서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여러 ‘지역적’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나아만의 오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들도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신 하나님을 단순히 지역적으로만 생각하고 불레티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백았다고 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킴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지역적으로 끌어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거두셨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1~24).

이처럼 구약성경에는 벨기세덱, 이드로, 발람, 라합, 롯 그리고 한 나라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 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도의 구원의 복음을 함께 보라고도 친히 말씀하셨다. “여호와께 영령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지 여호와께 이기 말옵소서니라”(사 40:5).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함께 불러 보았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기다리셨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듯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기다리셨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2교구 10지역	박홍규
7월 28일(월)~8월 8일(수)	네 팔	2교구 12지역	한송규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2교구 13지역	엄복섭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7교구 1지역	박용기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1교구 7지역	양한원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4교구 8지역	류기명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6교구 3지역	박광식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6교구 6지역	고제승
7월 28일(월)~8월 6일(수)	불가리아	17교구 10지역	권병철
7월 28일(월)~8월 8일(금)	키르기스스탄	2교구 2지역	이계인
7월 28일(월)~8월 8일(금)	인 도	9교구 2지역	강희창
7월 28일(월)~8월 8일(금)	인 도	10교구 6지역	강만호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르기스스탄	3교구 1지역	최남하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르기스스탄	3교구 2지역	이달옥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르기스스탄	3교구 5지역	문효식
7월 29일(화)~8월 8일(금)	불가리아	3교구 3지역	김희선
7월 30일(수)~8월 8일(금)	불가리아	6교구 4지역	김영주
7월 29일(화)~8월 8일(금)	카자흐스탄	14교구 2지역	전은배
7월 29일(화)~8월 8일(금)	카자흐스탄	예배다부	조종환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2교구 8지역	정운환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12교구 7지역	이병영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17교구 4지역	정부조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17교구 2지역	김홍기
7월 31일(목)~8월 7일(목)	키르기스스탄	4교구 7지역	신선길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7월 21일(월)~7월 30일(수)	네 팔	3교구 4지역	김성호
7월 22일(화)~8월 1일(금)	카자흐스탄	9교구 1지역	동방용운
7월 22일(화)~8월 1일(금)	카자흐스탄	15교구 6지역	박종태
7월 22일(화)~8월 1일(금)	키르기스스탄	9교구 6지역	김연태
7월 22일(화)~8월 2일(토)	네 팔	1교구 6지역	김대웅
7월 23일(수)~8월 1일(금)	네 팔	6교구 2지역	김규석
7월 23일(수)~8월 1일(금)	네 팔	6교구 5지역	김태식
7월 26일(토)~8월 4일(월)	인 도	8교구 8지역	손기현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7월 9일(수)~7월 22일(화)	카자흐스탄	13교구 3지역	권영주
7월 9일(수)~7월 22일(화)	카자흐스탄	13교구 4지역	임채봉
7월 15일(화)~7월 25일(금)	불가리아	4교구 2지역	오순도
7월 15일(화)~7월 26일(토)	우즈베키스탄	14교구 1지역	조홍진
7월 16일(수)~7월 25일(금)	인 도	14교구 6지역	강만수

'소망'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선교부에서 사역하면서 나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란인들은 옛 페르시아의 문화적인 자존심과 이슬람의 종교적 자존심 그리고 옛날에는 한국보다 잘 살았었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야'라며 열매가 눈에 보이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쓸쓸히 돌아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또한 충현교회 단기선교의 영향으로 외신부 내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단기선교지로 여러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래도 부흥이 되고 함께 동역할 교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 특히 이슬람 국가들은 무관심의 대상인 동시에 복음에 대해 소외된 나라가 된다. 게다가 누군가가 양적인 부흥을 요구할 때는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다른 팀의 사역을 할까?' 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 발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먹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전 9:10b), 이 말 씀처럼 이란 형제들을 대할 때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말한 이란의 경제적 자존심을 깨서서 한국 땅에 근로자로 일하러 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눈으로 직접 패쇄적인 이슬람 사회와 한국을 비교하게 하여 이슬람의 종교적 자존심도 허물고 계신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신자라 중의 하나로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임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이들의 완고한 종교관마저도 흔들어 놓고 계심을 이들의 진지한 눈빛을 통해 알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배 설교의 통역이 원활하지 못해 안타까웠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성실한 이란인 통역자를 붙여 주시고 페르시아어로 복 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셨다. 외신부의 이란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접하더라도 본 국에 돌아가면 배교자로 낙인 찍혀 배척당하고 심지어 투옥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란에서 이슬람 정권 퇴진을 위해 국민들이 봉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채우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본다.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는 이란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하게 물들여질 것과 이들이 돌아갈 본국에서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소망해 본다. 아울러 충현교회 단기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란 땅을 밟게 될 그날도 ...

(권영집 간사, 이란 팀)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36)

인도 남쪽의 '방갈로르'로 오는 8월 7일에서 15일까지 8박 9일로 단기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단기선교를 가는 것이 처음이라서 먼저 다나온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정보도 얻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 다. 처음에 팀원들을 모으고, 갈 날짜를 잡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선교라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니까 전도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일쩌라도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면서 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단기선교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도 5월에 처음 모일 때와 지금은 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단기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 중 다수가 단기선교를 처음 가기 때문에 모두 열정과 설렘이 있습니다. 저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기대됩니다. '방갈로르'는 저희 교회에서 단기선교를 처음 가는 지역이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예비된 영혼을 통해 '방갈로르' 지역에 말씀이 전파되는 거점이 생길 수 소망합니다.



4교구 1지역장
이상석

기도제목

- 1.말씀과 기도로써 단기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 2.인도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도록
- 3.팀원들 서로가 먼저 회개하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염정섭 기자)

위험과 신앙

박 윤 하(청년1부)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법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이노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욥 1:5-6).

하나님께서서는 요나에게 니느례로 가서 니느례 사람들을 회개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 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피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결과 위험한 상황에 빠졌고 그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 냈습니 다.

엄청난 위험, 목숨이 달려 있는 위험이기에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자 배를 가법게 하려고 배 안의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 다. 그러나 그 역시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살아남기 원했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났습니 다. 이러한 순간에 직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극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배 밑에 잠들어 있던 요나에게 이 상황을 위해 요나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자 했지만 그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권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도 절대로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헌신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 속에서 삼일을 보내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회개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그분이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위탁과 위탁, 그리고 침입 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맡긴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 많은 것을 맡긴다. 맡긴다는 말에는 '위탁'에 의미와 '위탁'에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위탁의 의미에서 주님께 '맡긴다'. '주님은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분이요'라고 주님을 추켜세우고는 나의 골치 아픈 일들을 주님께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 마음가짐은 성도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소극적이게 만든다. 자신의 짐을 덜어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자신이 할 일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듯이 주님께 우리의 일을 '맡긴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주님께 평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성경에서는 '맡긴다'는 말을 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눅 22:29).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신 말씀은 신약에만 바로 30여 번이 나온다. 위탁을 할 경우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해야 한다. 위탁자는 주님이시고 그 위탁을 받고 일을 해야 할 자가 바로 우리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이를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적극적이 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스도 침입하느니라"(골 16:16). 우리가 위탁 받은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짐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을 주님께서 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의미이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은 어떤가? 주님께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 많은 일을 맡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벧전 5:7)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이것은 성경에서 성도가 주님께 '맡긴다'는 말을 사용한 유일한 구절이다. 하지만 문장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위탁이 아니라 위탁이다. 다음 주에는 위탁의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 알아보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조 (권요설)

충현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은혜의 역사이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 은혜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연약의 시작부터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셨다. 인간들의 쓰러질 수 밖에 없는 연약함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흠 없고 유일한 사망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즉,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크신 계획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이며, 자랑인 것이다.

또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명령이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를 은혜로 깨달은 주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느끼는 자들은 반드시 깨달은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십자가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버려지지 않기 위하여 사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믿는 자들에게 '라고'고 명하시며 주의 길을 따라 순종하도록 부르셨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 받은 종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그 위대한 역사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간절한 명령이다.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믿는 자들의 기준이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 그러나 나약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수없이 흔들리고 쓰러지며 헤매게 된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기준이 되며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주의 길을 메고 땅을 걸어갈 때, 그 가볍고 쉬운 주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다.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며 우리를 위해 기쁘게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깨닫게 된다.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그 피 값으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우리를 '가라'고 명하시는 주의 부르심과 그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보살핌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며, 피미인 것이다. 십자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그 무엇보다 두려울 것이 없다. 나보다도 나를 더욱 깊이 아시며 주위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책임지시는 것이다. 십자가는 바로 나의 전부이다.



정한나
(대학부-정학생)

현글위원 인터뷰

예배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듣고 헌금시간에 물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찬양과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구요(롬 12:1).

제가 헌금위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헌금드리는 시간이 말씀시간 다음으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서 더욱 그렇지는 몰라도 드릴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헌금위원을 하면서는 무엇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다는 것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작으나마 섬길 수 있게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위하여 수종통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매우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헌금위원은 처음 시작할 당시엔 헌금위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한 선배의 얘기를 듣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헌금위원이 부족하다는 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5부예배 헌금위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 이거든요. 원래 헌금위원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헌금 위원은 두 명, 네 명, 여섯 명 이렇게 해야 있어야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 혼자 하고 있어서 담당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드네요. 그 사정을 빼고는 힘든 일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배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가 아니듯이 항상 찬양하는 산 세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동혁
(청년1부-헌금위원)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지 말씀해 주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찬양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유학을 가려다가 못 가게 되어 인생에서 처음으로 좌절을 맛 보고 힘들 때마다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제 자신의 노력으로 적절한 위치에 올라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능력과 재능과는 상관없이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찌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를 늘 묵상합니다.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 친구의 전도로 충현 교회 고등부에 출석하면서, 우연히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늘 꾀박하다가,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성악 전공을 권유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싶었던 저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 성악 전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어머니를 설득하자 흔쾌히 동의하며 꾀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몇년 전 별일 찬양대 여름 수련회에서 친구가 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제게는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대원들은 그 날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못할 상황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조수진 선생
가브리엘찬양대 솔리스트

(임혜원 기자)

4. 기도제목들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이 내 영원한 안식처로다

창 쥘려 피 흘리시는 주님의 옆구리 옆
그곳이 내 영원한 안식처로다
구주께서 죽으심은 나를 위하시니
이것이 내 모든 소망이요
마귀의 참소 물리치는 모든 힘이라

심자가에 달린 내 구주 내 하나님이지여
죄와 죄책(罪責)이 가득한 내게
당신의 보혈을 늘 뿌려주소서
그러하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소서

그 피로 날 씻어주소서
나 당신의 소우 삼으소서
날 씻으시면 나 당신의 것 되오니
내 발뿐 아니라
내 손, 내 머리, 내 마음까지 모두 씻어주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그 속죄를 내게 주소서
믿음의 삶을 마치고 당신 얼굴 친히 뵈는 그 날까지
소망의 열매 무로익이 추수하는 그 날까지
나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을 뵈어 사랑하게 될 그 날까지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작사

참고 구절- 욥 13:1, 요 13:8, 고전 1:30, 갈 6:14, 딤후 3:5, 히 4:9-10, 10:19-22.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미옥'성도를 소개합니다

10년 전에 교회를 다니며 세례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운영과 이사로 인해서 교회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교회를 다시 다니야겠다고 생각하던 차, 남편 선배가 충현 교회를 다니는 그분의 전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는 했으나 아직 뚜렷한 감동이 안 와서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았습니다. 주년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간접적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핵으로 고생하다가 주님을 만난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성령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아직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설교가 제게 어렵지만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을 알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도인이었던 남편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서 남편이 예수님을 알아 우리 부부가 함께 성령을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집삼)

다음 주일 찬송.....

5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856년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염병으로 잃은 E. P. 프렌티스(Elizabeth Pason Prentiss, 1818-1878) 여사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닥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라고 그런 일이 닥치지 말라는 법이 있소?"라고 말하며 오히려 아픈 심정을 경멸 삼아 슬픔 또한 성도의 가정은 위로하리 나가는 남편을 보고 감동해서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소리내어 부르자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이 찬송시를 썼다. 그후 W. H. 돈(William Howard Doane, 1832-1915)박사가 곡을 붙여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한 노래들」이라는 자신의 성가집에 수록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절: '오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무릎 꿇고 드리는 나의 간구들 오소서, 나의 진지한 간청이여! 오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2절: '나 한때 세상의 기쁨 같았었고, 평안과 안식 찾았었네, 이제 나 주님만 찾노니 가장 좋은 것 주옵소서, 오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3절: '이제 나의 마지막 호흡이 주의 찬양 속삭이리니 이것이 나의 마음에 드릴 최후의 외침이 되리니! 이것이 또한 기도가 되어야하리니 오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이 찬송가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충현 성도들로 하여금 주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전망원교회)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20	김미숙	1	장년부	박영미(16)	937	지승현	12	중동부	박정숙(17)	954	김승훈	19	대학부	장영현(10)	
921	김종희	1	장년부	윤소희(1)	938	한수민	12	중동부	김정숙(17)	955	최은정	19	대학부	강한나(4)	
922	한정구	5	장년부	김지숙(5)	939	정현선	12	소망부		956	박성준	19	대학부	정옥연(9)	
923	박성민	5	장년부	이진숙(1)	940	신지은	12	소망부	김종현(12)	957	장승아	19	대학부	서미연(3)	
924	조옥주	6	장년부	고재숙(6)	941	변영혜	13	장년부	김진숙(3)	958	김종식	19	대학부	변영혜(6)	
925	차선숙	6	장년부	강영희(17)	942	한진진	14	에베다부	송용규(19)	959	김준주	19	대학부	최유연(5)	
926	김영주	7	장년부	이정숙(3)	943	김기차	14	장년부	조남숙(4)	960	박진진	19	대학부	김종자(5)	
927	남궁준	8	장년부	김정숙(7)	944	최은진	15	장년부	이승숙(1)	961	이유정	19	에베다부	노지은(19)*	
928	이순재	8	장년부	유옥주(1)	945	최유선	16	장년부	정효숙(19)	962	박시영	19	에베다부	김종자(4)	
929	주승원	8	장년부	김정숙(12)	946	김희진	19	중동부	윤용선(14)	963	안숙영	19	에베다부	홍은숙(3)	
930	배경동	8	소망부	김정숙(48)	947	이종훈	19	대학부	박하희(8)	964	김진영	19	에베다부	윤민주(7)	
931	박수남	9	장년부	민정숙(17)	948	김진희	19	장년부	최은진(13)	965	나사나	19	에베다부	김경숙(3)	
932	윤영희	9	소망부	김준원(8)	949	전현옥	19	장년부	최희정(19)	966	박주	19	회신부		
933	김세성	10	장년부	김남희(8)	950	윤재영	19	장년부		967	박주	19	회신부	조성석(6)	
934	김성곤	11	장년부	김종홍(8)	951	고유정	19	장년부	김희숙(17)	968	함	19	회신부	조성석(6)	
935	윤용홍	11	장년부	김진경(8)	952	이대규	19	장년부	김진숙(3)	969	비투	19	회신부	조성석(6)	
936	김성규	11	장년부	박은숙(8)	953	고재영	19	장년부	김정숙(16)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에도 힘을 주세요!

손 유 리 (초년부)



작년 4학년 때 '백주향'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다. 하루는 주향이의 생일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그런데 즐거운 생일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와 주향이 외 3명과 놀고 있는데 '열방교회' 전도사님께서 전도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얘들아, 예수님을 믿니?"

우리 중, 나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 전도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향이 중간에 전도사님의 말씀을 막았다.

"전 저속가도 괜찮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기가 막혔다. 한편으로는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다. 주향이는 더 큰 소리를 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이지 주향이의 모든 말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말 같아서였다. 정말로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내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 지금 생각하니 주향이처럼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를 한다.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나도 이제는 목사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더욱 실감이 난다.

'예수님, 기도가 한 가지 있어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주향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게 되고, 천국에 가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에도 힘을 주세요!'

할머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김 한 별 (유년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아빠가 교회에 함께 못 가시는 날은 전철을 타고 가는대 산본역에서 역삼역까지 너무 힘이 들어요. 2번이나 갈아 타거든요.

우리 천원교회는 참 좋고 재미있어요. 제가 1학년 때 친구를 5명이나 전도했어요. 전 처음에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데리고 간 친구들이 저급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얼굴 하나하나를 전부 기억하고 계시어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나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즐거워지고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공기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들 때문에 가슴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여러 나라의 흠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머칠만 다른 여름방학인데도,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꼭 이 말을 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믿음의 학교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왕하 17장)

"...호세아가...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12절).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이래로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장시도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애굽 왕의 도움을 확신하여 해마다 앗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지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애굽은 국내적으로 분열 상태에 있어 북이스라엘을 지원할 수 없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 군대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7절). "경외하다"의 히브리어 '이레우'는 '심리적인 공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숭배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드'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 숭배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또 우상을 섬겼으니..." (9-12절).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저희가...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니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또 여호와께서 명하시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사람을 본받아" (14,15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굳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방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로 그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혼합주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중히 여기시는 이러한 죄악들을 즐겨 행했습니다(16-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에 빠져든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한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으며, 어떠한 징벌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약 1:14).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러니 건달고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3).

(권형일 기자)

받는 사랑, 베푸는 사랑

초등부 교사로 봉사한 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새내기 교사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지,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주 토요일에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아무 일 없었는지, 말씀은 몇 장이나 읽었는지 등 항상 비슷한 것들만 물어오는 선생님의 전화가 너무 귀찮았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걸고서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누르고, 부족한 입을 통해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선생님이로 말입니다.

제 50회 여름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사"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설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준비기도와 찬송으로 선생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학생들에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3). 주일학교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랑을 받는 자에서 사랑의 공급자가 되어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그 이상을 아이들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어린 영혼들의 마음 속에 성장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석 경 형 (초등부 교사)

교회 소식

모임

1. 권사 4지회 월례회
일시: 7월 30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양사부신
2. 안수집사 월례회
일시: 8월 3일(주일) 15:30
장소: 교육관 201호
3. 남녀친도부 연합회 월례회
일시: 7월 28일(월) 15:15
장소: 전도위원회실

별세

1. 조영환 성도 박병수 성도의 부인, 4교구 4지역 방배2구역/ 7월 17일 별세, 7월 19일 장례
2. 이윤희 성도 박경애 성도의 남편, 5교구 우면신원구역/ 7월 18일 별세, 7월 21일 장례
3. 박승준 성도 김경호 권사의 아들, 이영훈 안수집사의 장모, 8교구 백산구역/ 7월 21일 별세, 7월 23일 장례

주선병원

1. 김경철 집사
부대머리 장안 354-22-543 살상 레미안 14 장안곡 103봉 993호 ☎ 02-2245-5712

직원 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운전직·경비직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본부, 경찰청 추천서(토교인)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충현교회

◆ 남녀 전도의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 위원회에서 200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2003년 7월 첫 주 ~ 2003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3년 1월 ~ 6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실 (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 (2003년 1월 ~ 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출

◆ 제1등산모반 전제 이상 (연고자들은 이상 절차를 주의하시기)

교회는 충현기도원 내에 있는 모반 전제를 제 2등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광고하여 이상을 해 왔지만 이번에는 충현기도원 내 제 1등산 장소에 새로운 용도가 생김에 따라 반칙 절차를 밟아 전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반의 연고자들은 이번 기회에 이상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고자들이 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반 절차를 따라 임의로 인정하게 됩니다.

문자는 교회 사무국의 김병수 집사(016-9252-7469), 제 2등산의 표원식 집사(011-237-9670)에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당비용 / 170만원 1) 경배-110원(원도석, 비석, 잔디, 인건비 등) 2) 관리비(10년-60만원)

8월 주일 및 수요 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장로)					찬양 예배 (안수집사)	수요 예배	
		I	II	III	IV	V		I	II
8	3	김광남	정정길	원운철	이태식	배준식	석영식	이서훈	김영길
	10	이창호	안필성	김한기	정태두	진종용	양병진	김영호B	권순애
	17	이 훈	안승원	안종록	김구형	강철형	구재환	백요심	김의철
	24	노광원	한승규	이종식	이계인	임무천	노영환	윤진희	고금자
	31	이병하	황영길	강도용	박홍규	신상수	최유덕	신일순	노광원

이반주 새벽기도회 담당

	28(월)	29(화)	30(수)	31(목)	1(금)	2(토)	3(주일)
설교자/기도자	양계호/김의철	김영호/이호일	김승표/이인영	안창덕/동복용	안치원/조영철	김정수/한영준	안창덕/신동자

예배 담당안내 (7/30-8/3)

날짜	예배	예배전담	사회	기도	설교
7/30	수요1	사경진	사경진	김영숙	말씀이 화평한 시대에(창 31-3) 류병복 목사
	수요2	장종신	장종신	장종신	설교자의 능력(창 42-24) 박기인 목사
8/1	금요초회	특별관람 하대니안 주일부활	양영기	양영기	김영호 목사
8/3	주일1	최종철	김광남	최종철	축복의 자비(창 32:26-29) 장 훈 목사
8/3	주일2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의 소망과 감사(마태복음 23:23) 장현민 목사	장영철	장영철	가서서 축복(창 32:29) 장현민 목사
8/3	주일3	주 하나님 계시로 인도 4세와 5세와 6세와 7세와 8세와 9세와 10세와 11세와 12세와 13세와 14세와 15세와 16세와 17세와 18세와 19세와 20세와 21세와 22세와 23세와 24세와 25세와 26세와 27세와 28세와 29세와 30세와 31세와 32세와 33세와 34세와 35세와 36세와 37세와 38세와 39세와 40세와 41세와 42세와 43세와 44세와 45세와 46세와 47세와 48세와 49세와 50세와 51세와 52세와 53세와 54세와 55세와 56세와 57세와 58세와 59세와 60세와 61세와 62세와 63세와 64세와 65세와 66세와 67세와 68세와 69세와 70세와 71세와 72세와 73세와 74세와 75세와 76세와 77세와 78세와 79세와 80세와 81세와 82세와 83세와 84세와 85세와 86세와 87세와 88세와 89세와 90세와 91세와 92세와 93세와 94세와 95세와 96세와 97세와 98세와 99세와 100세와 101세와 102세와 103세와 104세와 105세와 106세와 107세와 108세와 109세와 110세와 111세와 112세와 113세와 114세와 115세와 116세와 117세와 118세와 119세와 120세와 121세와 122세와 123세와 124세와 125세와 126세와 127세와 128세와 129세와 130세와 131세와 132세와 133세와 134세와 135세와 136세와 137세와 138세와 139세와 140세와 141세와 142세와 143세와 144세와 145세와 146세와 147세와 148세와 149세와 150세와 151세와 152세와 153세와 154세와 155세와 156세와 157세와 158세와 159세와 160세와 161세와 162세와 163세와 164세와 165세와 166세와 167세와 168세와 169세와 170세와 171세와 172세와 173세와 174세와 175세와 176세와 177세와 178세와 179세와 180세와 181세와 182세와 183세와 184세와 185세와 186세와 187세와 188세와 189세와 190세와 191세와 192세와 193세와 194세와 195세와 196세와 197세와 198세와 199세와 200세와 201세와 202세와 203세와 204세와 205세와 206세와 207세와 208세와 209세와 210세와 211세와 212세와 213세와 214세와 215세와 216세와 217세와 218세와 219세와 220세와 221세와 222세와 223세와 224세와 225세와 226세와 227세와 228세와 229세와 230세와 231세와 232세와 233세와 234세와 235세와 236세와 237세와 238세와 239세와 240세와 241세와 242세와 243세와 244세와 245세와 246세와 247세와 248세와 249세와 250세와 251세와 252세와 253세와 254세와 255세와 256세와 257세와 258세와 259세와 260세와 261세와 262세와 263세와 264세와 265세와 266세와 267세와 268세와 269세와 270세와 271세와 272세와 273세와 274세와 275세와 276세와 277세와 278세와 279세와 280세와 281세와 282세와 283세와 284세와 285세와 286세와 287세와 288세와 289세와 290세와 291세와 292세와 293세와 294세와 295세와 296세와 297세와 298세와 299세와 300세와 301세와 302세와 303세와 304세와 305세와 306세와 307세와 308세와 309세와 310세와 311세와 312세와 313세와 314세와 315세와 316세와 317세와 318세와 319세와 320세와 321세와 322세와 323세와 324세와 325세와 326세와 327세와 328세와 329세와 330세와 331세와 332세와 333세와 334세와 335세와 336세와 337세와 338세와 339세와 340세와 341세와 342세와 343세와 344세와 345세와 346세와 347세와 348세와 349세와 350세와 351세와 352세와 353세와 354세와 355세와 356세와 357세와 358세와 359세와 360세와 361세와 362세와 363세와 364세와 365세와 366세와 367세와 368세와 369세와 370세와 371세와 372세와 373세와 374세와 375세와 376세와 377세와 378세와 379세와 380세와 381세와 382세와 383세와 384세와 385세와 386세와 387세와 388세와 389세와 390세와 391세와 392세와 393세와 394세와 395세와 396세와 397세와 398세와 399세와 400세와 401세와 402세와 403세와 404세와 405세와 406세와 407세와 408세와 409세와 410세와 411세와 412세와 413세와 414세와 415세와 416세와 417세와 418세와 419세와 420세와 421세와 422세와 423세와 424세와 425세와 426세와 427세와 428세와 429세와 430세와 431세와 432세와 433세와 434세와 435세와 436세와 437세와 438세와 439세와 440세와 441세와 442세와 443세와 444세와 445세와 446세와 447세와 448세와 449세와 450세와 451세와 452세와 453세와 454세와 455세와 456세와 457세와 458세와 459세와 460세와 461세와 462세와 463세와 464세와 465세와 466세와 467세와 468세와 469세와 470세와 471세와 472세와 473세와 474세와 475세와 476세와 477세와 478세와 479세와 480세와 481세와 482세와 483세와 484세와 485세와 486세와 487세와 488세와 489세와 490세와 491세와 492세와 493세와 494세와 495세와 496세와 497세와 498세와 499세와 500세와 501세와 502세와 503세와 504세와 505세와 506세와 507세와 508세와 509세와 510세와 511세와 512세와 513세와 514세와 515세와 516세와 517세와 518세와 519세와 520세와 521세와 522세와 523세와 524세와 525세와 526세와 527세와 528세와 529세와 530세와 531세와 532세와 533세와 534세와 535세와 536세와 537세와 538세와 539세와 540세와 541세와 542세와 543세와 544세와 545세와 546세와 547세와 548세와 549세와 550세와 551세와 552세와 553세와 554세와 555세와 556세와 557세와 558세와 559세와 560세와 561세와 562세와 563세와 564세와 565세와 566세와 567세와 568세와 569세와 570세와 571세와 572세와 573세와 574세와 575세와 576세와 577세와 578세와 579세와 580세와 581세와 582세와 583세와 584세와 585세와 586세와 587세와 588세와 589세와 590세와 591세와 592세와 593세와 594세와 595세와 596세와 597세와 598세와 599세와 600세와 601세와 602세와 603세와 604세와 605세와 606세와 607세와 608세와 609세와 610세와 611세와 612세와 613세와 614세와 615세와 616세와 617세와 618세와 619세와 620세와 621세와 622세와 623세와 624세와 625세와 626세와 627세와 628세와 629세와 630세와 631세와 632세와 633세와 634세와 635세와 636세와 637세와 638세와 639세와 640세와 641세와 642세와 643세와 644세와 645세와 646세와 647세와 648세와 649세와 650세와 651세와 652세와 653세와 654세와 655세와 656세와 657세와 658세와 659세와 660세와 661세와 662세와 663세와 664세와 665세와 666세와 667세와 668세와 669세와 670세와 671세와 672세와 673세와 674세와 675세와 676세와 677세와 678세와 679세와 680세와 681세와 682세와 683세와 684세와 685세와 686세와 687세와 688세와 689세와 690세와 691세와 692세와 693세와 694세와 695세와 696세와 697세와 698세와 699세와 700세와 701세와 702세와 703세와 704세와 705세와 706세와 707세와 708세와 709세와 710세와 711세와 712세와 713세와 714세와 715세와 716세와 717세와 718세와 719세와 720세와 721세와 722세와 723세와 724세와 725세와 726세와 727세와 728세와 729세와 730세와 731세와 732세와 733세와 734세와 735세와 736세와 737세와 738세와 739세와 740세와 741세와 742세와 743세와 744세와 745세와 746세와 747세와 748세와 749세와 750세와 751세와 752세와 753세와 754세와 755세와 756세와 757세와 758세와 759세와 760세와 761세와 762세와 763세와 764세와 765세와 766세와 767세와 768세와 769세와 770세와 771세와 772세와 773세와 774세와 775세와 776세와 777세와 778세와 779세와 780세와 781세와 782세와 783세와 784세와 785세와 786세와 787세와 788세와 789세와 790세와 791세와 792세와 793세와 794세와 795세와 796세와 797세와 798세와 799세와 800세와 801세와 802세와 803세와 804세와 805세와 806세와 807세와 808세와 809세와 810세와 811세와 812세와 813세와 814세와 815세와 816세와 817세와 818세와 819세와 820세와 821세와 822세와 823세와 824세와 825세와 826세와 827세와 828세와 829세와 830세와 831세와 832세와 833세와 834세와 835세와 836세와 837세와 838세와 839세와 840세와 841세와 842세와 843세와 844세와 845세와 846세와 847세와 848세와 849세와 850세와 851세와 852세와 853세와 854세와 855세와 856세와 857세와 858세와 859세와 860세와 861세와 862세와 863세와 864세와 865세와 866세와 867세와 868세와 869세와 870세와 871세와 872세와 873세와 874세와 875세와 876세와 877세와 878세와 879세와 880세와 881세와 882세와 883세와 884세와 885세와 886세와 887세와 888세와 889세와 890세와 891세와 892세와 893세와 894세와 895세와 896세와 897세와 898세와 899세와 900세와 901세와 902세와 903세와 904세와 905세와 906세와 907세와 908세와 909세와 910세와 911세와 912세와 913세와 914세와 915세와 916세와 917세와 918세와 919세와 920세와 921세와 922세와 923세와 924세와 925세와 926세와 927세와 928세와 929세와 930세와 931세와 932세와 933세와 934세와 935세와 936세와 937세와 938세와 939세와 940세와 941세와 942세와 943세와 944세와 945세와 946세와 947세와 948세와 949세와 950세와 951세와 952세와 953세와 954세와 955세와 956세와 957세와 958세와 959세와 960세와 961세와 962세와 963세와 964세와 965세와 966세와 967세와 968세와 969세와 970세와 971세와 972세와 973세와 974세와 975세와 976세와 977세와 978세와 979세와 980세와 981세와 982세와 983세와 984세와 985세와 986세와 987세와 988세와 989세와 990세와 991세와 992세와 993세와 994세와 995세와 996세와 997세와 998세와 999세와 1000세와 1001세와 1002세와 1003세와 1004세와 1005세와 1006세와 1007세와 1008세와 1009세와 1010세와 1011세와 1012세와 1013세와 1014세와 1015세와 1016세와 1017세와 1018세와 1019세와 1020세와 1021세와 1022세와 1023세와 1024세와 1025세와 1026세와 1027세와 1028세와 1029세와 1030세와 1031세와 1032세와 1033세와 1034세와 1035세와 1036세와 1037세와 1038세와 1039세와 1040세와 1041세와 1042세와 1043세와 1044세와 1045세와 1046세와 1047세와 1048세와 1049세와 1050세와 1051세와 1052세와 1053세와 1054세와 1055세와 1056세와 1057세와 1058세와 1059세와 1060세와 1061세와 1062세와 1063세와 1064세와 1065세와 1066세와 1067세와 1068세와 1069세와 1070세와 1071세와 1072세와 1073세와 1074세와 1075세와 1076세와 1077세와 1078세와 1079세와 1080세와 1081세와 1082세와 1083세와 1084세와 1085세와 1086세와 1087세와 1088세와 1089세와 1090세와 1091세와 1092세와 1093세와 1094세와 1095세와 1096세와 1097세와 1098세와 1099세와 1100세와 1101세와 1102세와 1103세와 1104세와 1105세와 1106세와 1107세와 1108세와 1109세와 1110세와 1111세와 1112세와 1113세와 1114세와 1115세와 1116세와 1117세와 1118세와 1119세와 1120세와 1121세와 1122세와 1123세와 1124세와 1125세와 1126세와 1127세와 1128세와 1129세와 1130세와 1131세와 1132세와 1133세와 1134세와 1135세와 1136세와 1137세와 1138세와 1139세와 1140세와 1141세와 1142세와 1143세와 1144세와 1145세와 1146세와 1147세와 1148세와 1149세와 1150세와 1151세와 1152세와 1153세와 1154세와 1155세와 1156세와 1157세와 1158세와 1159세와 1160세와 1161세와 1162세와 1163세와 1164세와 1165세와 1166세와 1167세와 1168세와 1169세와 1170세와 1171세와 1172세와 1173세와 1174세와 1175세와 1176세와 1177세와 1178세와 1179세와 1180세와 1181세와 1182세와 1183세와 1184세와 1185세와 1186세와 1187세와 1188세와 1189세와 1190세와 1191세와 1192세와 1193세와 1194세와 1195세와 1196세와 1197세와 1198세와 1199세와 1200세와 1201세와 1202세와 1203세와 1204세와 1205세와 1206세와 1207세와 1208세와 1209세와 1210세와 1211세와 1212세와 1213세와 1214세와 1215세와 1216세와 1217세와 1218세와 1219세와 1220세와 1221세와 1222세와 1223세와 1224세와 1225세와 1226세와 1227세와 1228세와 1229세와 1230세와 1231세와 1232세와 1233세와 1234세와 1235세와 1236세와 1237세와 1238세와 1239세와 1240세와 1241세와 1242세와 1243세와 1244세와 1245세와 1246세와 1247세와 1248세와 1249세와 1250세와 1251세와 1252세와 1253세와 1254세와 1255세와 1256세와 1257세와 1258세와 1259세와 1260세와 1261세와 1262세와 1263세와 1264세와 1265세와 1266세와 1267세와 1268세와 1269세와 1270세와 1271세와 1272세와 1273세와 1274세와 1275세와 1276세와 1277세와 1278세와 1279세와 1280세와 1281세와 1282세와 1283세와 1284세와 1285세와 1286세와 1287세와 1288세와 1289세와 1290세와 1291세와 1292세와 1293세와 1294세와 1295세와 1296세와 1297세와 1298세와 1299세와 1300세와 1301세와 1302세와 1303세와 1304세와 1305세와 1306세와 1307세와 1308세와 1309세와 1310세와 1311세와 1312세와 1313세와 1314세와 1315세와 1316세와 1317세와 1318세와 1319세와 1320세와 1321세와 1322세와 1323세와 1324세와 1325세와 1326세와 1327세와 1328세와 1329세와 1330세와 1331세와 1332세와 1333세와 1334세와 1335세와 1336세와 1337세와 1338세와 1339세와 1340세와 1341세와 1342세와 1343세와 1344세와 1345세와 1346세와 1347세와 1348세와 1349세와 1350세와 1351세와 1352세와 1353세와 1354세와 1355세와 1356세와 1357세와 1358세와 1359세와 1360세와 1361세와 1362세와 1363세와 1364세와 1365세와 1366세와 1367세와 1368세와 1369세와 1370세와 1371세와 1372세와 1373세와 1374세와 1375세와 1376세와 1377세와 1378세와 1379세와 1380세와 1381세와 1382세와 1383세와 1384세와 1385세와 1386세와 1387세와 1388세와 1389세와 1390세와 1391세와 1392세와 1393세와 1394세와 1395세와 1396세와 1397세와 1398세와 1399세와 1400세와 1401세와 1402세와 1403세와 1404세와 1405세와 1406세와 1407세와 1408세와 1409세와 1410세와 1411세와 1412세와 1413세와 1414세와 1415세와 1416세와 1417세와 1418세와 1419세와 1420세와 1421세와 1422세와 1423세와 1424세와 1425세와 1426세와 1427세와 1428세와 1429세와 1430세와 1431세와 1432세와 1433세와 1434세와 1435세와 1436세와 1437세와 1438세와 1439세와 1440세와 1441세와 1442세와 1443세와 1444세와 1445세와 1446세와 1447세와 1448세와 1449세와 1450세와 1451세와 1452세와 1453세와 1454세와 1455세와 1456세와 1457세와 1458세와 1459세와 1460세와 1461세와 1462세와 1463세와 1464세와 1465세와 1466세와 1467세와 1468세와 1469세와 1470세와 1471세와 1472세와 1473세와 1474세와 1475세와 1476세와 1477세와 1478세와 1479세와 1480세와 1481세와 1482세와 1483세와 1484세와 1485			
8/3	주일4	주께로 인도 4세와 5세와 6세와 7세와 8세와 9세와 10세와 11세와 12세와 13세와 14세와 15세와 16세와 17세와 18세와 19세와 20세와 21세와 22세와 23세와 24세와 25세와 26세와 27세와 28세와 29세와 30세와 31세와 32세와 33세와 34세와 35세와 36세와 37세와 38세와 39세와 40세와 41세와 42세와 43세와 44세와 45세와 46세와 47세와 48세와 49세와 50세와 51세와 52세와 53세와 54세와 55세와 56세와 57세와 58세와 59세와 60세와 61세와 62세와 63세와 64세와 65세와 66세와 67세와 68세와 69세와 70세와 71세와 72세와 73세와 74세와 75세와 76세와 77세와 78세와 79세와 80세와 81세와 82세와 83세와 84세와 85세와 86세와 87세와 88세와 89세와 90세와 91세와 92세와 93세와 94세와 95세와 96세와 97세와 98세와 99세와 100세와 101세와 102세와 103세와 104세와 105세와 106세와 107세와 108세와 109세와 110세와 111세와 112세와 113세와 114세와 115세와 116세와 117세와 118세와 119세와 120세와 121세와 122세와 123세와 124세와 125세와 126세와 127세와 128세와 129세와 130세와 131세와 132세와 133세와 134세와 135세와 136세와 137세와 138세와 139세와 140세와 141세와 142세와 143세와 144세와 145세와 146세와 147세와 148세와 149세와 150세와 151세와 152세와 153세와 154세와 155세와 156세와 157세와 158세와 159세와 160세와 161세와 162세와 163세와 164세와 165세와 166세와 167세와 168세와 169세와 170세와 171세와 172세와 173세와 174세와 175세와 176세와 177세와 178세와 179세와 180세와 181세와 182세와 183세와 184세와 185세와 186세와 187세와 188세와 189세와 190세와 191세와 192세와 193세와 194세와 195세와 196세와 197세와 198세와 199세와 200세와 201세와 202세와 203세와 204세와 205세와 206세와 207세와 208세와 209세와 210세와 211세와 212세와 213세와 214세와 215세와 216세와 217세와 218세와 219세와 220세와 221세와 222세와 223세와 224세와 225세와 226세와 227세와 228세와 229세와 230세와 231세와 232세와 233세와 234세와 235세와 236세와 237세와 238세와 239세와 240세와 241세와 242세와 243세와 244세와 245세와 246세와 247세와 248세와 249세와 250세와 251세와 252세와 253세와 254세와 255세와 256세와 257세와 258세와 259세와 260세와 261세와 262세와 263세와 264세와 265세와 266세와 267세와 268세와 269세와 270세와 271세와 272세와 273세와 274세와 275세와 276세와 277세와 278세와 279세와 280세와 281세와 282세와 283세와 284세와 285세와 286세와 287세와 288세와 289세와 290세와 291세와 292세와 293세와 294세와 295세와 296세와 297세와 298세와 299세와 300세와 301세와 302세와 303세와 304세와 305세와 306세와 307세와 308세와 309세와 310세와 311세와 312세와 313세와 314세와 315세와 316세와 317세와 318세와 319세와 320세와 321세와 322세와 323세와 324세와 325세와 326세와 327세와 328세와 329세와 330세와 331세와 332세와 333세와 334세와 335세와 336세와 337세와 338세와 339세와 340세와 341세와 342세와 343세와 344세와 345세와 346세와 347세와 348세와 349세와 350세와 351세와 352세와 353세와 354세와 355세와 356세와 357세와 358세와 359세와 360세와 361세와 362세와 363세와 364세와 365세와 366세와 367세와 368세와 369세와 370세와 371세와 372세와 373세와 374세와 375세와 376세와 377세와 378세와 379세와 380세와 381세와 382세와 383세와 384세와 385세와 386세와 387세와 388세와 389세와 390세와 391세와 392세와 393세와 394세와 395세와 396세와 397세와 398세와 399세와 400세와 401세와 402세와 403세와 404세와 405세와 406세와 407세와 408세와 409세와 410세와 411세와 412세와 413세와 414세와 415세와 416세와 417세와 418세와 419세와 420세와 421세와 422세와 423세와 424세와 425세와 426세와 427세와 428세와 429세와 430세와 431세와 432세와 433세와 434세와 435세와 436세와 437세와 438세와 439세와 440세와 441세와 442세와 443세와 444세와 445세와 446세와 447세와 448세와 449세와 450세와 451세와 452세와 453세와 454세와 455세와 456세와 457세와 458세와 459세와 460세와 461세와 462세와 463세와			